

농촌 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교*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Exchang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Sex and Age Group Differences*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이형실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Lee, Hyong-Sil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sex and age group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ural elderly. Data were from 545 elderly over 60 years of age living separately from adult children in the rural area. With regard to sex differences in support exchang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support-giving and support-receiving. Men reported giving more financial support to children than women, while women reported receiving more financial support from children than men. With regard to age group differences in support exchanges, there was less support-giving in older age group. Older parents in their 60s reported giving more financial,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and receiving less financial support than the group of age 70+.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life satisfaction of both men and women was affected by support size and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Giving financial and instrumental suppor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Corresponding Author: Hyong-Sil Le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221 Heugsuk-dong Dongjak-k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397 Fax: 82-2-812-5311 E-mail: hslee97@hotmail.com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with life satisfaction of men, but giving and receiving each type of social support had no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of women.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in their 60s was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upport size, giving financial support and receiving emotional support,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giving instrumental support. In the group of age 70+,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adult children and giving financial support had positive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세대간 지원 교환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exchange), 노인(older adults)

I. 서 론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원체계는 더욱 더 중요하다. 건강의 쇠퇴와 더불어 농촌 노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대체로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으며 생활여건상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농촌 노인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성인자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경향이 높으며, 때로는 성인자녀가 도시로 가면서 남겨진 손자녀를 부양하는 부담을 지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나, 농촌지역 중 많은 곳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사회적 서비스 체계도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한 농촌 노인에게 지원이 더 제한될 수 있다.

노인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노인에 대한 부양과 도움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으로 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은 성인자녀와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한 근원이다. 노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성인자녀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또한 자녀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노부모도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한다(Ingorsoll-Dayton, Neal, & Hammer, 2001).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성인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노부모도 성인자녀에게 정서적 지원과 물질적 도움

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Greenberg & Becker, 1988). 또한 노부모는 일상적으로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한다(Brody, 1990)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Bengtson & Kuypers, 1986).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들은 사회적 지원을 수혜하기 보다는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부모와 자녀간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자녀로부터 노부모에게 제공된 지원에만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 상대적으로 노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별로 규명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노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지원 교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Ikking, Tilburg, & Knipscheer, 1999).

농촌 노인의 경우 공적 서비스의 이용이 어렵거나 활용가능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존도가 도시 노인에 비해 더 높다(김은숙, 1995). 따라서 농촌 노인에게 있어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또한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자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노년기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면서도 자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원순영, 1985),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에 많은 사회적 지원 교환이 있다(Dykstra & Knipscheer, 1995).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간 사회적 지원이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어 왔다(서병숙·이현, 1995; 이형실, 1999; 한경혜·홍진국, 2000). 그러나 아직까지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사회

적 지원의 어떤 측면이 노인의 생활만족과 어떻게 관련되는 지는 별로 규명되지 않았다.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사회적 지원의 어떤 측면이 생활만족과 관련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지원의 의미와 생활만족에 대한 기여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인도 모두 다 비슷한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성을 가진 집단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노인집단 내 다양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야 노인집단 내 다양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노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지원을 더 수혜하며 사회적 지원의 제공은 적어질 것이라고 가정된다. 즉, 연로해짐에 따라 노인이 가진 자원이 감소하므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능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지원을 수혜할 필요성은 커진다는 것이다(Morgan, Schuster, & Butler, 1991). 이러한 가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연령별 사회적 지원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노인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도 제한적이며, 사회적 지원의 유형에 따라 성별과 연령별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힌 연구는 더욱 더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노인이 자녀와 주고받는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고,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그 유형별로 나누었고 사회적 지원의 교환을 각각 제공과 수혜별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의미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 및 연령집단별 분석을 통하여 노인 집단내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 지원간 관련성 및 이를 요인으로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의 세대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II. 관련연구 고찰

1. 성별 및 연령별 사회적 지원

관련연구들에 의하면 성별은 사회적 지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큰 지원망을 보고하며 더 많은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노인은 일상생활을 혼자 해결하는 반면, 남성노인은 주로 자녀나 그 밖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박충선·남정립, 1996).

또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자녀와 더 빈번하게 접촉하며 자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수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Eggebeen, 1992). Spitzel와 Miner(1992)의 연구에서도 여성에 비해 남성노인이 성인 자녀와 적은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노인간에는 사회적 지원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한경혜·홍진국, 2000). 한편, 건강상태와 배우자 유무 등의 변수가 통제될 경우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의 양이나 접촉 빈도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Morgan, 1983)도 있다.

노인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교환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년기와 노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Morgan, Schuster, & Butler, 1991),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 모두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수혜보다는 사회적 지원의 제공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은 어떤 유형의 사회적 지원이 노인에 의해 수혜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도 있다. Penning(1990)은 캐나다 노인 12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이 가사 일이나 장보기 같은 지원의 수혜를 예측하는 요인이나, 정서적 지원의 수혜

와는 관련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2. 생활만족 관련 요인

많은 연구들이 노인의 건강상태와 심리적 복지간 관계를 규명한 결과, 노인의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효식·서병숙, 1994; 박충선, 1990).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였다(유성호, 1997).

연구들은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유성호·모선희, 1997; 유성호, 1997). Lee와 Ellithorpe(1982)의 연구에서 자녀수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hop 등(1988)은 노인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변인 중에서 남성노인에게는 가족역할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고 여성노인에게는 건강보다는 가족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독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혜정·김태현·이동숙, 2000)에서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 주관적 경제상태 및 질병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의 관련성

관련연구들은 사회적 지원의 여러 측면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도시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최해경(1996)의 연구에서 가족·친척 지원망의 크기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망과의 긴밀한 접촉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장현·이철우, 1996), 자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았다(신효식·서병숙, 1994; 김태현·김수정, 1996). 그러나 Russell(1996)의 연구에서 노인의 대인간 관계의 객관적 특성 즉, 접촉빈도는 심리적 복지와 약하게 관련되었고, 접촉빈도와 관계망 크기보다 대인관계의 질이 심리적 복지와 더 강하게 관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마

찬가지로 박경란·제미경·오찬옥(1995)의 대도시 단독가구 여자 노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노인과 장남 가족간의 접촉의 양은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맏며느리와의 관계의 질은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Tyler(2000)의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경험한 노인은 더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지원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Husaini 등, 1991)가 있다. 이 연구에서 흑인노인여성의 우울은 낮은 사회적 지원, 그리고 친척·친구와의 낮은 접촉빈도와 관련되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사회적 접촉의 빈도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은 우울 정도를 예측하지 않았다.

각 사회적 지원의 유형 및 제공과 수혜별로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지원의 수혜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더 큰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인자녀로부터 받는 도구적, 정서적 지원은 적정 수준에서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높은 수준의 지원은 오히려 해롭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도 있다(Silverstein 등, 1996). 한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은 노부모에게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Lee(1988)는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은 자녀와의 지원 교환에서 호혜성을 증가시켜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중국 노부모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Chen & Silverstein, 2000)에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의 제공만이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원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e, Netzer, & Coward, 1994).

국내연구로 김정석·김의기(2000)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의 제공과 수급 여부를 통해 세대간 지원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세대간의 균형있는 지원교환이 노인의 생활만족을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대간 사회적 지원

의 각 유형 및 제공과 수혜별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농촌 부부가구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형실, 1999)에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수혜는 노인의 생활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나,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의 제공은 노인의 생활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련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간 관련성을 규명해 왔으나 일관된 결과를 밝히고 있지 않다. 농촌노인처럼 자녀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접촉, 그리고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간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사회적 지원의 유형 및 제공과 수혜를 나누어 분석한 연구도 부족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에 수집한 농촌 노인에 관한 자료 중에서 혼자 또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단독가구노인 545명을 분석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에서 각각 평야, 산간, 중산간, 도시 근교의 성격을 가진 4개 시군을 선정한 후 이를 총 32개 시군에서 1개 마을씩을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노인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남성 261명(47.9%)과 여성 284명(52.1%)으로 구성되었다. 독거가구 노인은 126명(23.1%)이었고 부부가구 노인은 419명(76.9%)이었다. 조사대상자 노인의 평균 연령은 68.76세였다. 60세에서 64세 이하가 164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65세에서 69세가 163명(29.9%), 70세에서 74세

가 122명(22.4%), 그리고 75세 이상이 96명(17.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연령집단을 60대와 70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60대에서 남성은 142명(43.4%), 여성은 185명(56.6%)이었으며 70세 이상에서 남성은 119명(54.6%), 여성은 99명(45.4%)이었다. 평균 자녀수는 5.0명이었고 교육수준은 국졸이 36.3%이었고 무학이 47.8%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사회적 지원의 크기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의 수를 측정하였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와 직접 만나는 빈도와 전화로 접촉하는 빈도를 묻는 두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거의 없음(1점), 1년에 몇 번(2점), 한 달에 1-2회(3점), 일주일에 1회 이상(4점), 거의 매일(5점)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척도는 선행 연구(김은숙, 1995; 최정아·서병숙, 1992; Arling, 1987; Krause, Herzog, & Baker, 1992)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와 얼마나 자주 사회적 지원을 주고받는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에서의 제공과 수혜를 각각 측정하였다. 경제적 지원에는 생활비나 용돈 제공, 급한 돈이 필요시의 도움에 관해 묻는 두 개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도구적 지원에는 집안 일이나 장보기 도움, 아플 때의 도움에 관한 두 문항이, 그리고 정서적 지원에는 중요한 일이나 문제 의논하기, 외로울 때 의지하기에 관한 두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별로, 가끔, 자주의 1-4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생활만족 척도는 박경란 등(1995)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가족관계, 건강, 소득, 주거 영역에 대한 만족 및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측정하는 총 다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IV. 연구결과

1. 농촌노인의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특성

농촌노인이 자주 접촉하는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조사대상노인이 자주 접촉하는 자녀수는 평균 2.49명이었다. 그리고 자녀 중에서는 장남부부(47.5%), 딸부부(21.5%), 차남이하 아들부부(18.5%)의 순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노인이 가장 자주 접촉하는 자녀의 거주지는 같은 도에 살고 있는 경우가 3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다른 도가 32.9%, 같은 군에 살고 있는 경우는 18.7%이었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한 달에 1-2회가 38.6%, 1년에 몇 번 정도가 28.2%, 1주에 1회 이상이 25.7%, 거의 매일이 7.5%이었다. 자녀와의 전화빈도는 1주에 1회 이상이 40.9%, 한 달에 1-2회가 31.2%, 거의 매일 전화한다는 응답이 22.1%이었다. 농촌노인의 경우 자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자녀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전화를 통한 접촉이 더 빈번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 성별 및 연령 집단별 사회적 지원 교환과 생활만족의 차이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집단을 60대와 70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1), 전체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 접수에서 모두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의 유형별로 분석했을 때,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경제적 지원의 수혜에서만 남성과 여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빈번하게 제공하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은 덜 빈번하게 수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경제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생활만족 접수에서도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노인의 생활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의 크기와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연령 집단별 차이를 보면(표 2), 전체 사회적 지원의 제공은 60대 노인이 70세 이상 노인보다 더 많았으나, 전체 사회적 지원의 수혜에서는 연령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 그리고 도구적 지원의 제공과 정서적 지원의 제공에서 연

<표 1> 성별 차이

	남성		여성		t
	M	SD	M	SD	
지원의 크기	2.57	1.92	2.41	1.94	.96
접촉빈도	6.88	1.53	6.94	1.49	-.43
경제적 지원 제공	4.09	1.61	3.78	1.61	2.13*
도구적 지원 제공	3.76	1.46	3.83	1.54	-.54
정서적 지원 제공	5.35	1.50	5.32	1.57	.23
경제적 지원 수혜	5.39	1.56	5.67	1.52	-2.05*
도구적 지원 수혜	5.27	1.48	5.35	1.45	-.59
정서적 지원 수혜	6.20	1.29	6.26	1.29	-.53
전체 지원 제공	13.22	3.52	12.95	3.68	.82
전체 지원 수혜	16.87	3.29	17.30	3.25	-1.46
생활만족	16.38	2.84	15.43	2.65	3.51***

*p < .05 **p < .01 ***p <.001

<표 2> 연령집단별 차이

	60대		70세 이상		t
	M	SD	M	SD	
지원의 크기	2.59	1.94	2.33	1.91	1.54
접촉빈도	6.94	1.49	6.88	1.54	.45
경제적 지원 제공	4.29	1.55	3.41	1.56	6.28***
도구적 지원 제공	4.06	1.51	3.42	1.42	4.82***
정서적 지원 제공	5.59	1.43	4.96	1.60	4.71***
경제적 지원 수혜	5.43	1.55	5.70	1.52	-1.97*
도구적 지원 수혜	5.26	1.42	5.38	1.52	-.90
정서적 지원 수혜	6.24	1.22	6.20	1.39	.37
전체 지원 제공	13.95	3.43	11.83	3.48	6.79***
전체 지원 수혜	16.94	3.11	17.32	3.50	-1.31
생활만족	16.15	2.60	15.62	3.07	1.90

*p < .05 **p < .01 ***p < .001

령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0대 노인은 70세 이상 노인보다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자녀에게 더 제공하였다. 60대 노인에 비해 7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수혜는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노인보다 70세 이상 노인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 의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의 크기와 자녀와의 접촉빈도, 생활만족에서는 연령집단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사회적 지원 교환간 상관관계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사회적 지원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남성과 여성노인 집단에서 모두 전체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 정적 상관관계($r = .25, p < .001; r = .26, p < .001$)가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노인 집단에서 모두 도구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 상관관계와,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구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r = .31, p < .001; r = .30, p < .001$),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r = .52, p < .001; r = .54, p < .001$)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더 빈번하게 제공할수록 또한 자녀로

부터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더 빈번하게 수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남성과 여성노인 집단에서 모두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60대와 7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도 전체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에 정적 상관관계($r = .41, p < .001; r = .12,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사회적 지원을 자녀에게 빈번하게 제공할수록 또한 자녀로부터 지원을 빈번하게 수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 집단에 비해 60대 노인 집단에서 전체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60대 노인 집단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r = .14, p < .01$), 도구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r = .47, p < .001$), 그리고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r = .51, p < .001$)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는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 상관관계($r = .50, p < .001$)만이 유의하였다. 연령이 높아도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비해 정서적 지원은 자녀에게 계속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지원을 자녀에게 제공할수록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빈번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대와 7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도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원에 비해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로부터 노인에게 제공된 지원과 노인이 자녀에게 제공한 지원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밝힌 연구(Lee, Netzer, & Coward, 1994) 결과를 일부 입증하는 것이다.

4. 사회적 지원 교환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인이 자녀와 주고받는 각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수준을 통제변수로 하고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성별에 따라 회귀분석을 한 결과(표 3), 남성 노인의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의 크기, 자녀와의 접촉빈도,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도구적 지원의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수혜도 생활만족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지원의 크기,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경제적 지원의 제공은 남성노인의 생활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적 지원의 제공은 생활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자주 접촉하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제공이 높을수록, 반면에 도구적 지원의 제공은 낮을수록 남성

노인의 생활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각 유형별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는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지원의 크기와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생활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를 통해 남성과 여성 노인의 생활만족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의 크기와 자녀와의 접촉빈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와의 긴밀한 접촉이 노인의 생활만족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신효식·서병숙, 1994; 김태현·김수정, 1996)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연령 집단별 회귀분석(표 4)에서 60대 노인 집단의 생활만족은 지원의 크기, 경제적 지원의 제공, 정서적 지원의 수혜와 정적 관련성을 가지며 도구적 지원의 제공과는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대 노인은 자주 접촉하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의 제공이 빈번할수록 생활만족은 낮았으나, 반면에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정서적 지원의 수혜는 생활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요인 중 정서적 지원의 수혜가 60대 노인의 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노인 집단의 경우 자녀와의 접촉빈도

〈표 3〉 생활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남성(여성)

	I β	II β	III β
건강 지원의 크기	.44***(.43***)	.43***(.41***) .12** (.16) .24*** (.20**)	.44***(.41***) .08* (.15*) .16* (.16*) .19** (.14) -.19** (-.05) .03 (.00) -.02 (-.11) .13 (.08) .14 (.08)
접촉빈도			
경제적 지원 제공			
도구적 지원 제공			
정서적 지원 제공			
경제적 지원 수혜			
도구적 지원 수혜			
정서적 지원 수혜			
R ²	.19 (.18)	.26 (.24)	.31 (.25)
F	49.75*** (39.43***)	25.28*** (19.54***)	11.25*** (7.42***)

*p < .05 **p < .01 ***p < .001

〈표 4〉 생활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60대(70세 이상)

	I β	II β	III β
건강 지원의 크기 접촉빈도	.44***(.46***) 	.43***(.46***) .16** (.12) .17** (.28***)	.42***(.44***) .14* (.08) .10 (.28**)
경제적 지원 제공 도구적 지원 제공 정서적 지원 제공 경제적 지원 수혜 도구적 지원 수혜 정서적 지원 수혜			.13* (.20*) -.20** (-.08) .05 (-.02) -.05 (-.07) .12 (.09) .21** (-.03)
R ²	.19 (.21)	.24 (.30)	.30 (.31)
F	55.24*** (39.78***)	25.04*** (21.63***)	11.84*** (8.35***)

*p < .05 **p < .01 ***p < .001

와 경제적 지원의 제공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지원의 제공에 비해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노인 집단은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빈번하게 제공할수록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70세 이상 노인 집단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각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가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농촌노인이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의 유형과, 그리고 제공과 수혜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노인의 건강수준을 통제한 후 사회적 지원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 집단의 경우 생활만족 변량에서 각각 11%와 10%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60대와 70세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각각 12%와 7%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농촌노인이 자녀와 주고받는 세대간 사회적 지원 교환에 있어서 성별 및 연령집단별 차

이를 살펴보고,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 및 연령집단별 분석을 통하여 노인집단내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60세 이상 545명의 농촌 단독가구 노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농촌노인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원 교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빈번하게 제공하나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빈번하게 수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은 여성노인보다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둘째, 연령 집단별 사회적 지원 교환의 차이를 보면, 전체 사회적 지원의 제공은 60대 노인이 70세 이상 노인보다 더 많았으나, 전체 사회적 지원의 수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차이가 없으나, 노인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제공은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60대 노인은 70세 이상 노인보다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을 자녀에게

더 제공하였다. 60대 노인에 비해 7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수혜는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 모두 감소하는 것을 밝힌 Morgan 등(1991)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Morgan 등(1991)의 연구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변화를 보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지원 제공이 감소하고 지원 수혜가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정과도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집단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으며 또한 현재의 70대와 80대 농촌노인이 가진 자원이나 건강이 60대 노인에 비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결과이다. 앞으로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원 교환의 차이를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원 교환간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성별과 연령집단에 상관없이 노인이 자녀와 주고 받는 전체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정서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간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더 빈번하게 제공할수록 또한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빈번하게 수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의 유형별로 보았을 때 다른 유형에 비해 정서적 지원에서는 상호 교환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농촌노인의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 노인의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원의 크기, 자녀와의 접촉빈도, 경제적 지원의 제공과 도구적 지원의 제공으로 나타났다. 자주 접촉하는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수록, 반면에 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은 적을수록 남성노인의 생활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생활만족에 지원의 크기와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각 유형별 사회

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는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노인 집단에서는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원에 비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의 제공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농촌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건강, 지원의 크기와 접촉빈도가 통제될 때 각 유형의 사회적 지원의 제공과 수혜는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의 교환이 아니라 지원의 크기와 접촉빈도 같은 사회적 지원의 구조가 여성노인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노인 집단 모두에서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은 생활만족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다섯째, 연령집단별로 농촌노인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사회적 지원 요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60대 노인 집단의 경우 지원의 크기, 경제적 지원의 제공, 정서적 지원의 수혜는 생활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도구적 지원의 제공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는 자녀와의 접촉빈도와 경제적 지원의 제공이 생활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7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60대 노인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기여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60대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60대 노인집단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수혜는 농촌노인의 생활만족 수준을 높이나, 남성 집단과 60대 노인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의 제공은 생활만족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사회적 지원 교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원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녀와 주고받는 사회적 지원의 유형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보상과 비용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은 노인이 가진 자원 및 노인의 독립성과 관련되므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수록 생활만족이 높아지지만,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서적 지원의 수혜는 오히려 노인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구적 지원과 관련된 상반된 결과를 보면,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이 많으므로 실제로 자녀와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이 어렵지만, 농촌 노인은 집안 일을 도와주는 것이나 아플 때 돌봐 주는 것 같은 도구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며 오히려 자녀에게 이러한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경우 이는 생활만족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집단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수혜 보다는 사회적 지원의 제공이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 이는 사회적 지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변화를 본 것이 아니라 연령집단간 차이를 규명한데서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세분화된 연령집단간 차이를 통해서 특정 유형의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제공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농촌노인의 생활만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로해져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있고 또 실제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지원 교환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농촌노인의 특성인지 또는 현재의 노인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국내연구(김정석·김익기, 2000)는 세대간의 관계에서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 자녀와 지원을 서로 주고받는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농촌노인 세대는 여전히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할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또 이러한 것이 농촌노인에게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녀와의 빈번한 접촉은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은 농촌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앞으로 농촌노인의 자녀와의 긴밀한 접촉과 관계를 향상시키고 자녀와의 사회적 지원 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노인이 사회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층 노인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집단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만 구분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집단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노년기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좀 더 심층적이며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농촌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원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노인 집단내에서도 다양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노인 집단 내 다양성이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노인 집단내 다양성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은숙(1995). 농촌 단독가구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망 이용실태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태현, 김수정(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10-127.
- 박경란, 제미경, 오찬옥(1995). 대도시 단독가구 여자

- 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01-114.
- 박충선(1990). 대구 경북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기정생활연구*, 5, 대구대학가정생활연구소.
- 박충선, 남정립(1996). 노인단독가구의 생존전략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2), 81-101.
- 서병숙, 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신효식, 서병숙(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한국노년학*, 14(2), 121-132.
-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른 분석. *한국노년학*, 17(2), 37-50.
- 유성호, 모선희(1997). 노후생활만족에 관련된 변인: 남녀차이에 대한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1), 37-49.
- 이형실(1999). 농촌 부부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3), 109-120.
- 장현, 이철우(1996).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시간적 차원의 연구. *한국노년학*, 16(2), 137-149.
-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2), 49-70.
- 최정아, 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1), 65-78.
- 최해경(1996). 도시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노년학*, 16(2), 39-52.
- 한경혜, 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Arling, G. (1987). Strain, social support, and distress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42, 107-113.
- Bengtson, V. L., & Kuypers, J. A. (1986). The family support cycle: Psycho-social issues in the aging family. In J. M. A. Munnichs, P. Musser, & E. Olbrich(Eds.), *Life span and change in a gerontological perspective*(pp. 61-77). New York: Academic Press.
- Bishop, D., Epstein, N., Baldwin, L., Miller, I., & Keitner, G. (1988). Older couples: The effect of health, retirement, and family functioning on morale. *Family Systems Medicine*, 6, 238-247.
- Brody, E. M. (1990). *Women in the middle: Their parent-care years*. New York: Springer.
- Chen, X. & Silverstein, M. (2000).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in China. *Research on Aging*, 22, 43-65.
- Dykstra, P. A. & Knipscheer, C. P. M. (1995). The availability and intergenerational structure of family relationships. In C. P. M. Knipscheer, J de Jong Gierveld, T. G. van Tilburg, & P. A. Dykstra(Eds), *Living arrangements and social networks of older adults*(pp. 37-58). Amsterdam: VU University Press.
- Eggebeen, D. J. (1992). Family structure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s. *Research on Aging*, 14, 427-447.
- Greenberg, J. S. & Becker, M. (1988). Aging parents as family resources. *The Gerontologist*, 28, 786-791.
- Husaini, B. A., Moore, S. T., Castor, R. S., Neser, W., Whitten-Stovall, R., Linn, J. G., & Griffin, D. (1991). Social density, stressors, and depression: Gender differences among the black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6, 236-242.
- Ikking, K., Tilburg, T., & Knipscheer, K. (1999). Perceived instrumental support ex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Normative and structural explan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831-844.
- Ingersoll-Dayton, B., Neal, M. B., & Hammer, L. B. (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ed generation.

- Family Relations*, 50, 262-271.
- Krause, N., Herzog, R. A., & Baker, E. (1992). Providing support to other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7, 300-311.
- Lee, G. R., & Ellithrope, E. (1982).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17-224.
- Lee, G. R., & Netzer, J. K., & Coward, R. T. (1995). Depression among older parents-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823-833.
- Morgan, L. A. (1983). Intergenerational economic assistance to children: The case of widows and widowers. *Journals of Gerontology*, 38, 725-731.
- Morgan, D. L., Schuster, T. L., & Butler, E. W. (1991). Role reversals in the exchang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 S278-287.
- Penning, M. J. (1990). Receipt of assistance by elderly people: Hierarchical selection and task specificity. *The Gerontologist*, 30, 220-227.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 Silverstein, M., Chen, X., & Heller, K. (1996). Too much of a good thing?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970-982.
- Spitze, G. & Miner, S. (1992). Gender differences in adult child contact among black elderly parents. *The Gerontologist*, 32, 213-218.
- Tyler, K. A. (2000). The effects of an acute stressor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Research on Aging*, 22, 143-164.

(2002년 6월 30일 접수, 2003년 3월 21일 채택)